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운영에 대한 담당교사의 인식

이 미 숙*

공주대학교

송 기 호**

공주대학교

《 요 약 》

본 연구는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 현황과 도서관 운영에 대한 담당교사의 인식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특수학교에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 6명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질적 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특수학교 도서관의 운영 현황으로, 도서관 운영시간, 도서관 이용 대상, 도서 선정 방법, 도서관 보조인력, 도서관의 대출·반납 방식,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제시하였다. 둘째,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의 특징으로, 소수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학교 관리자의 도서관에 대한 낮은 인식, 도서관 사용의 다른 용도, 도서관의 상근자 부재를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교사들의 수업지원, 도서관의 인력지원, 도서관의 환경개선 지원, 도서관 운영 연수 지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특수학교, 학교도서관, 도서관 담당교사

I. 서 론

현행 『도서관법』(법률 제9528호)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유형에 장애인 도서관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을

* 제1저자(mslee3@kongju.ac.kr)

** 교신저자(giho7@kongju.ac.kr)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대통령령 제 19959호)에서는 도서관(실)을 특수학교에 설치해야하는 학교 시설로 명시함으로써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란 ‘도서관 이용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의미하며(일본도서관협회 장애인서비스위원회, 2000), 도서관의 경영 원리 측면에서 ‘정보 평등’과 ‘정보 접근성’을 구현하는 활동이다. 특히 공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학교도서관 이용은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한 문화적 소양의 함양이나 여가 생활의 다양화라는 정의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또한 학습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장차 직업 환경에서 갖추어야 할 독서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등 자주적인 학습능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학교도서관 서비스는 자료와 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식기반사회의 교육원리인 학생의 자주적 학습능력과 평생학습능력을 신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학교도서관 경영 원리를 반영하여 2007년에 개정된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에서는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학습 전이성을 갖춘 환경에서 책과 독서, 정보 그리고 정보공학기술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AASL, 2007). 또한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국제 기준과 해외 주요 기준에서 도출한 핵심 가치도 접근성과 이동권 보장, 지역사회와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웹 접근성과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준수, 그리고 인적 자원의 개발 및 활동 등이다(김영기, 이연옥, 2008).

국내의 경우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교육적 역할 증대에 대한 관심은 일반학교와 비장애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특수학교 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장애학생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그러나 2010년 현재 국내 특수학교는 150개에 달하고 재학생수는 767,087명에 달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따라서 장애학생의 정보이용과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공공도서관에만 맡겨둘 수는 없으며, 공교육 차원에서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권과 평생학습능력 신장 등 학교도서관의 시대적 경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학교도서관은 교육과정의 운영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환경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담당교사의 도서관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도능력이 중요하다. 공공도서관의 경우이지만 장애인 이용자는 도서관이라는 공간 속에서 어떠한 정보를 활용할 것인가라는 불안보다는 타인과의 접촉인 도서관 직원과 관련된 심리적·정서적 불안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보성, 김은정, 남영준, 2010). 해외의 연구 사례에서 보면,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교사가 도서관을 장애학생의 중요한 편의시설로 조성할 수 있으며, 학습자료 지원, 정보활용능력과 정보공학기술 지도

를 통해서 장애학생의 평생학습능력과 여가생활 능력 그리고 공공도서관 이용능력 등을 길러줄 수 있다고 하였다(Murray, 2000). 무엇보다도 장애학생의 사회 통합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도서관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특수학교의 경우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특수학교 도서관에 대한 투자와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류명옥 2008). 국내의 특수학교 도서관에 전문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단 2곳(서울맹학교, 선희학교)으로, 대부분의 특수학교에서는 특수교사가 도서관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특수학교 도서관은 전문인력의 배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반학교 도서관에 비해 열악한 실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도서관 활용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장애 유형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체장애나 시각장애를 지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다. 즉, 지체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도서관 시설과 설비에 관한 연구들과(이근민, 김인서, 임명준 2004; 정재영 2009; 정재영, 정혜미 2010), 시각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도서관 자료 접근과 이용권에 대한 연구들(강숙희 2001, 2011; 김영신 2004; 김영일 2007; 배경재, 광승진 2006; 임안수 1991)이 중심이 되어져 왔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령기에 있는 장애학생들의 도서관 활용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분명 특수학교에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고, 장애학생들의 이용이 있다면, 그 이용 실태는 어떠한지 장애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수학교에 설치된 학교도서관은 장애학생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이다. 더 나아가 특수학교 도서관의 서비스는 장애학생에 대한 단순한 복지 향상이 아니라 교육의 균등한 기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는 특수학교 도서관이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기본권적인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도서관 운영과 장애학생의 도서관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특수학교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도서관 담당교사들이 도서관 운영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 문제로 선정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장애학생들의 특수학교 도서관 이용에 대한 담당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신지체 특수학교 도서관 담당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하여, 이들이 특수학교에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험한 장애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인식 및 담당교사들이 생각하는 특수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직접 면담을 실시하였다. 직접 면담을 통한 질적 자료는 질적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주제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특수학교에서 도서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 6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소속된 특수학교는 정신지체 학교로 한정하였다. 특히,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감각장애학교는 도서관 운영에 있어 특이성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충남 소재 특수학교 3개교, 부산 소재 특수학교 2개교, 대전 소재 특수학교 1개교에 소속되어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이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최종학력	특수교사 경력	도서관 담당교사 경력
A	여	30대 후반	대졸	12년	4개월
B	여	20대 중반	대졸	4개월	4개월
C	여	30대 초반	대졸	9년	4년
D	남	30대 중반	석사	10년	3년
E	여	30대 후반	석사	3년	6개월
F	여	20대 후반	대졸	4년	4개월

3. 자료 수집

연구 참여 가능자에게 전화를 걸어 먼저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였다. 전화상으로 연구개요에 대한 설명과 면담 시 녹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렸으며, 참여 가능자의 긍정적인 답변에 따라 면담 일정을 정하였다. 전화 통화이후 대상자의 이메일을 통해 면담 질문지를 먼저 보내어 면담 시 이루어질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도록 하였다. 이메일에 면담은 반드시 작성된 질문의 순서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면담동안 이루어지는 대화의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었다.

면담은 담당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담당학급에서 이루어졌으며, 면담은 수업이 모두 종료된 오후 3시 이후에 이루어졌다. 면담 직전 또는 면담 직후 학교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시설을 확인하였다. 면담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동의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하도록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동의에 따라 녹음하였다. 면담 시간은 연구 참여자에 따라 상이하였지만, 평균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4. 자료 분석

면담에 따른 녹음 자료는 면담 이후 바로 전사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바로 분석에 들어갔으며, 먼저 전사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다음 참여자의 면담에 대한 질문시 참고하였다. 전사본의 분석 시 먼저 전사된 자료와 비교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이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먼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구, 절, 문장에 밑줄을 그었으며, 밑줄 친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명명하였다. 각 전사본마다 밑줄 친 구, 절, 문장을 명명된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였으며, 명명된 주제들을 다시 검토하여 주제와 부주제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때, 지속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에 따라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주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Creswell, 1998). 인터뷰 전체 내용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응답 내용 간에 나타나는 주제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비교는 새로운 주제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분류, 비교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3개의 주제가 발견되었으며, 14개의 하위주제가 생성되었다.

5. 질적 연구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노력

질적 연구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과 전이성을 고려하였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과 동료연구자 보고(peer debriefing)

를 사용하였다. 참여자 확인을 위해, 완성된 전사본과 1차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연구 참여자의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사본의 내용과 1차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연구자의 이메일로 다시 발송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1차 분석한 결과의 내용에서 범주에 따른 명명을 수정하거나 본인들이 의도한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설명하는 방법으로 참여자 검토에 참여하였다. 동료연구자 보고는 본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은 특수교육 전문가로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1인에게 코딩된 결과를 설명하고, 동료연구자로부터 범주와 주제에 대한 수정을 제안 받았다. 동료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 이후 최종 주제가 선정되었다.

III.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 결과,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 현황,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 특징,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는 3가지 주제 하에,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4가지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표 2> 자료 분석 결과 표

주제	하위주제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 현황	도서관 운영시간 도서관 이용 대상 도서 선정 방법 도서관 보조인력 도서관의 대출·반납 방식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 특징	소수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학교 관리자의 도서관에 대한 낮은 인식 도서관 사용의 다른 용도 도서관의 상근자 부재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교사들을 위한 수업지원 도서관 인력지원 도서관 환경개선 지원 도서관 운영에 대한 연수지원

1. 특수학교 도서관의 운영 현황

1) 도서관 운영시간

도서관 운영시간은 학교마다 상이하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오전시간에만 도서관을 개방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도서관이 개방되어 있는 동안에 도서관 담당교사나 관련 인력이 도서관을 지키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관련 인력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도서관이 개방된 채 있는 곳도 존재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때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으로, 대개는 여유가 있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9시부터 5시까지 도서관 운영시간이구요, 학생들한테는 누군가 늘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분이 없어서 쉬는 시간에 빌리러 오라고 하는데, 오전에 1시까지 쉬는 시간에 빌리러 오거나, 점심 먹고 나서 빌리러 와요. (담당교사 A)

저희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3교시까지지만 이렇게 딱 하니깐 오시면 문이 잠겨있어서 조금 대출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이들도 조금 자유롭게 와서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여건상 되지 못하니깐, (담당교사 E)

2) 도서관 이용 대상

도서관의 주된 이용 대상은 학교 학생, 교직원이었으며, 학부모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가끔씩 존재하였다. 도서관에는 학생 수준에 적합한 도서나 자료뿐만 아니라 교사나 일반 성인을 위한 도서와 자료도 함께 비치가 되어져, 학생뿐만이 아닌 교직원들도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1) 학생

학교에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하였지만, 이 소수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일명 “도서관을 사랑하는 아이들” 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이들은 도서관을 애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실제 도서관을 방문하여 자신이 원하는 도서를 가져와 읽고(또는 그림이나 사진 자료를 보고) 필요한 경우 대출하여 이후에 반납하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 즉, 특수학교에서 이렇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51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2권 3호)

책 읽는 애들은 책이 좋아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자폐인 아이들에게는 그게 하루 일과 인거예요, 점심시간에 와서 항상 정해진 자리에서 책을 읽는 게 일과인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요, 보통 오는 아이들이 정해져 있죠, (담당교사 B)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정서 쪽 애들은 책을 잘 봐요, 책을 잘보고 읽기도 잘하기 때문에 어디서 들고 와가지고 저도 모르는 소설, 판타지 소설을 1권부터 8권까지 있는데 사주시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보기도 해요, 도서관을 아주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거의 열 명의 아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책이 좋아서 옵니다, 책을 보고요, 그중에 한두 명은 이 친구가 좋은데 이 친구가 도서관 가니까 따라온 애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지만 와서 다른 건 안 해요, 책을 봅니다, (담당교사 D)

그 아이는 글씨는 읽을 수 있었거든요, 도서관에 와서 책상에 앉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요, 순서대로 안 맞게 읽으면 순서대로 읽도록 조금 봐주면 또 읽고, 이렇게 해서 쉬는 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했어요, (담당교사 F)

(2) 교직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직원들은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들을 위해 책을 대출해 가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특히 교사의 경우는 도서관을 방문하여 자신의 수업준비에 필요한 도서를 대출하거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책을 대신 빌려가기도 하였다.

직장생활 하시다 보니까 오후에 지역사회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가기가 어려우시잖아요, 학교에서 자기 자녀나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책도 빌려 가시기도 하고, 많이 보시는 편이세요, (담당교사 A)

교사들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공서적이란던지 아니면 수업지도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이용하세요, 저희가 교직원 수에 비해 교직원 교양도서가 조금 부족한 편이었는데, 어린이 도서 뿐만 아니라 그쪽도 비중을 높여서,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책이 늘었어요, (담당교사 F)

(3) 학부모

학부모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지만, 학교를 방문하는 기회가 생겼을 시에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을 대여해 가는 경우가 있었다. 담당교사는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책이 있으면 빌려갈 것을 추천했지만, 실제 자신의 자녀를 통해 간접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임이라든지 회의가 있다든지 해서 특별히 학교에 오시는 경우에 빌려 가지고, 또 반납하시고, 학부모님이 학교에 못 오시는 경우에는 일부러 책을 보러 오시기는 조금 힘드시죠, (담당교사 E)

그래서 가끔 오시는 어머니들한테 얘기를 하죠, 책을 신청하고 싶을 때 아이의 알림장에 이리이러한 책을 빌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학부모 회의가 있거나 공개수업이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많이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담당교사 D)

3) 도서 선정 방법

도서 선정 방법은 도서관 담당교사가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고 목록을 작성한 다음 관련 위원회의 통과를 거쳐 구입을 결정하였다. 담당교사는 학생이나 학부모 보다는 주로 교직원을 통해 실질적인 추천을 받고 있었다. 물론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도서 추천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실제 학생과 학부모가 도서 추천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였다.

저희는 매달 구입을 해요, 조금 바쁘긴 한데 하루가 다르게 책이 나오는데…… 항상 업데이트가 되듯이, 매달 최신 베스트들만 모아서 구매를 해요, 그건 신청자가 따로 없어도 항상 구매를 합니다, 베스트 1,2,3,4까지는 가능하면 구매를 하고……, (담당교사 D)

각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필요하신 것 또는 권유해 주시고 싶은 책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십시오 해가지고 목록을 다 받았고, 학생들도 목록을 일단 다 받았고, 학부모님은 저희는 가정통신문, 알림장이라고 저희가 나가는데 알림장에 목록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학부모, 교사, 학생 이렇게 다 신청을 받은 목록에서 아동용 도서 한 50% 정도, 그 다음 성인용 50% 정도 되도록 반반씩 해서 목록을 구성했어요, (담당교사 E)

4) 도서관 보조인력

도서관 보조인력은 학교에 따라서 성인 보조원 또는 학생 보조원을 두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도서관 업무를 보조하는 성인 보조원의 경우는 학교에 따라 다르긴 하였지만, 특수교육보조원, 인턴교사, 또는 학부모가 보조하는 경우였다. 그리고 학생 보조원의 경우는 학교 재학생 중에서 도서관 보조가 가능한 기능을 가진 학생을 도우미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1) 성인 보조원

성인 보조원으로는 특수교육보조원이나 인턴교사, 또는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의 역할은 도서관에서 DLS(Digital Library System)프로그램의 관리, 대출·반납서비스, 도서 정리, 도서관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물론 어떤 학교들은 성인 보조원이 배치되지 못해 이 모든 업무를 담당교사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성인 보조원이 배치되어 있는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담당교사의 도서관 업무를 줄여주는 것은 물론, 담당교사가 도서관에 대기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학생이나 다른 교사들을 위한 대출·반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

대출, 반납 업무를 그 선생님께서 하세요, 제가 계속 도서관에 있을 수는 없고 이리다 보니까, 보조적인 역할도 해주시고, 그래요, 도서관 담당으로 자질구레한 청소나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주변정리까지 맡아서 해주시거든요, (담당교사 F)

학부모 사서 도우미 어머니는 저희가 각 학급별로 신청서를 배부해서 봉사를 원하시는 어머니는 봉사를 해 주십시오 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어머니들이예요, 그렇게 해서 학부모 사서 도우미 어머니가 화, 수, 목, 금 1주일에 4번 오시구요, 1교시부터 3교시까지 9시 20분부터 11시 40분 까지만 업무를 하는 거예요, (담당교사 E)

(2) 학생 보조원

학생 보조원은 담당교사나 성인 보조원의 지도에 따라 도서관 업무에 대한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담당교사나 성인 보조원은 장애학생의 수준에서 가능한 역할들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이러한 학생 보조원을 두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도서관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역할도 있지만, 장애학생에게 직업교육의 일환으로서 역할을 부여하는 의미도 존재하였다.

사서 도우미들은 전공과 학생들이구요, 복지 일자리라고해서 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경우예요, 주로 청소, 왜냐면 책이 사실은 분류번호가 있고, 연번이 있기 때문에 책 정리는 학생들이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담당교사 E)

학생을 사서 도우미로서 활용해보자고 생각하고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회의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선생님 반 중에 도서관에 관심 있는 친구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책 정리하고 청소하고, 책 정리하는 게 주로, 책이 굉장히 손을 많이 타거든요, 그리고 테이블이 여섯 개인데 여섯 개 닦고, 밀대질도 하고, 자동문이 유리니까 손을 많이 타서 그거 닦고, (담당교사 D)

5) 도서관의 대출·반납 방식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근무하는 특수학교의 도서관에는 모두 전산화가 되어 있어 DLS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 도서관에 지속적인 상주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부 학교는 다른 교사들에게 도서관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교사들이 직접 DL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스로 대출·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도서관 개방시간 동안에 도서관 인력이 계속적으로 도서관에 상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들 자체적으로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도서관 개방시간 동안 도서관 인력이 상주하는 경우는 굳이 다른 교사들이 DLS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도서관 활용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고 있었다. 대신에 교사들이 직접 대출·반납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시에는 수기를 통해 직접 작성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구두로 대출·반납상황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제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다 했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한지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도서관 수업을 신청한 정도 수준의 선생님들은 자기가 바코드 찍고 자기가 다 합니다, 셀프로, 그래서 도서관 수업을 교사들 스스로 할 수 있게 제가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담당교사 D)

책을 오셔가지고 빌리실 때 여기서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저희가 도서 대출일지나 DVD 대출일지라고해서 수기로 적는 거 있죠, 다 장부를 만들어 놨거든요, 장부를 만들어놔서 사람이 흑시 없는 경우에는 일지에 적어 놓으시면 제가 와서 보고 반납 업무를 하고 대출 업무를 하고, (담당교사 E)

대출은 그냥 선생님 저희 이거 빌려갔어요 다음에 갖다놓을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에 가져다 놓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도, 상주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교사 스스로 DLS를 사용한다는 게 번거로운 거예요. (담당교사 C)

6)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1) 도서관 활용수업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특수학교에서는 도서관 활용수업을 하고 있었다. 도서관 활용수업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각 학급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도서관으로 옮겨와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교사들마다 그 수업의 운영 방식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서관 서가에 있는 도서들을 활용하여 수업

을 전개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예, 미술, 음악)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도서관 활용수업 동안 교사들은 학생들이 선정한 책을 직접 읽어주거나 학생들로 하여금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도서관 활용을 해서 각 반마다 거의 원하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모두 사용을 하시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제에 맞게 학생들이 가서 원하는 책을 고를 수 있는 기회 주고, 거기 아이들한테 읽을 시간도 주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DVD나 다른 자료를 활용해서 도서관에서 수업을 할 때도 있어요. (담당교사 F)

도서관 활용수업은 보통은 애들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는 것, 그리고 보고 싶은 책을 선택해서 조용히 차분하게 읽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는 읽고 싶은 동화책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선정해 해가지고 수업도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동화책을 읽고 OX 퀴즈 해서 맞추는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선택해서 진짜 대출, 반납 하는 것을 직접 해보는 것, 바코드를 찍거나 자기 이름 써서 대출 확인하고, 반납 확인하고 이런 것들 하는 수업……. (담당교사 E)

(2) 독서 활동 또는 프로그램

특수학교마다 상이하기는 하였지만, 특수학교 실정에 적합한 여러 가지 독서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장애학생들의 경우 읽기에 어려움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독왕' 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교사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 혼자 책을 읽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사가 읽기를 도와주는 것과 같은 지원을 통해 책에 대한 흥미를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독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OX 퀴즈나 독서골든벨을 운영하는 학교도 존재하였다. 장애학생들이기에 이러한 독서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책들은 주로 활자보다는 그림이 많은 유아용 도서나 초등 저학년 도서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다독자 시상 같은 경우에는 독서통장에 자기가 읽고 담임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거 읽었어요, 하면 주인공이 누구였어, 주인공이 어떤 성격이었어, 줄거리가 어떤 내용이었어, 얘기 해줘 봐 이러한 질문에 학생이 답하면 담임선생님이 아 얘가 읽긴 했구나 이렇게 확인해주시죠, 그게 증거 자료예요, 그거 외에도 독서퀴즈도 하고 독후 표현대회라고 하거든요, 글을 읽고 수준이 낮은 아이들은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글쓰기가 되는 애들은 독후감처럼 글쓰기를 한다든지 해서 독후 표현대회를 하죠. (담당교사 A)

저희는 특수학교다 보니깐 일반학생들처럼 독서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하기가 힘들죠, 독후감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행사들은 하기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시낭송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OX퀴즈나 독서골든벨을 몇 년간 계속 하고 있어요, 활발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나 장애 정도에 맞추어서 독서활동을 하고 있어요, (담당교사 E)

2.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의 특징

1) 소수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특수학교 도서관은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보다는 정해진 소수의 학생들이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담당교사들이 인식하기에 도서관에 스스로 오는 아이들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학급별로 도서관 활용수업이 이루어질 때는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형태이지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도서관을 방문해 책을 보거나 읽는 학생들은 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다.

애들이 지적능력이 낮아서 글자보고 책 읽는 것 자체를 어려워해서 즐기지 않는 것도 있고요, 선생님들도 독서교육을 충분히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전문성도 부족하기도 하고, 우선은 교과부담이 커서 그렇죠, 수업 부담도 있고 이러다보니깐,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아쉬움이 많죠, (담당교사 B)

인지적인 측면에서 책을 통해 이렇게 해서 충치가 생기고 건강을 위해서 이를 닦아야 된다는 거 까지 연결을 못시키고, 그런 독서보다는 당장 화장실가서 이 바르게 닦는 연습이 필요한 아이들이 특수학교에서는 많다보니깐 독서교육이 덜 강조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담당교사 A)

2) 학교 관리자의 도서관에 대한 낮은 인식

도서관 담당교사들은 학교 관리자들이 도서관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하였다. 담당교사들이 도서관의 활성화를 생각해 어떠한 제안들을 하였을 때 학교 측으로부터 그것들이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현재의 도서관 운영에 안주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더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도서관 운영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을 위한 예산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고, 다른 학교 사업에 치중함으로써 도서관의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장난감 같은 것 비치해놓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도서회의에서 잘리는 거죠, 장난감을사? 감사에 걸려, 이렇게 되니까, 변화, 획기적인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거는 애초에 차단되다보니까 엄두도 내지 못했고, 도서업무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 학교에 있는 예산의 몇 퍼센트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전혀 그렇게 운영은 안 되거든요, 무슨 그렇게 책을 많이 본다고 확 잘라요, 그냥 이렇게 운영되는 것만으로도 옛날보다는 훨씬 좋으니까요,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것 같아요, (담당교사 C)

사실 학교가 직업 진로 관련해서 연구학교도 하고 있고, 사실 그쪽에 관심 가고 많이 홍보 되고 좀 알려지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으로 많이 선생님들이 신경 쓰시고 추진하는 일들이 많아진 거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 거 같아요, (담당교사 F)

3) 도서관 사용의 다른 용도

특수학교에서는 공간의 제한으로 인해 도서관을 도서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존재하였다. 학교마다 그 용도는 상이하기는 하였지만, 넓은 테이블과 의자가 갖춰진 조용한 공간이기에 회의실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실습생을 받는 기간에는 교육실습생들이 마땅하게 머무를 장소가 없어 도서관을 교육실습생들을 위한 장소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자유스럽게 도서관을 활용하는데 제한이 존재하였다.

저희가 따로 회의실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장단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교정실에서 하고, 전교직원 협의회는 교무실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소그룹별로는 도서관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도서관 분위기가 되게 편안하잖아요, 산만하지 않고 집중되는 분위기, 이게 좀 안락하고 이렇다 보니까 소그룹의 회의실로 많이 활용을 하세요, (담당교사 A)

전담 선생님들이 교실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들께서 갈 데가 없으니까 도서실에 대부분 있는 거예요, 보조원들도 마찬가지고, 교생실습도 오면 교생들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교무실 이외의 이차적 공간으로 도서관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분들이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할 수없이 도서관 이용이 줄게 되는 것 같아요, (담당교사 C)

4) 도서관의 상근자 부재

도서관 담당교사들은 모두 학급담임 업무를 맡으면서 동시에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도서관에 학교 일과동안 상주할 수 있는 상근자가 없는 경우,

담임업무와 함께 도서관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고 하였다. 그나마 특수교육보조원이나 학부모 도우미, 또는 도우미 학생이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아무런 보조인력이 없는 경우보다는 상황이 괜찮았지만, 담당교사들에게는 담임업무와 함께 상근자가 없는 도서관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었다.

제가 문헌정보과를 나온 게 아니다보니, 그걸 배워가면서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수업을 다 하고 나서는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도 저 책들을 정리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앞서고, 책만 정리해도 금방 퇴근할 시간이 되기 때문에, 도서대회를 열고 여러 가지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잡무가 너무 많은 거죠. (담당교사 F)

도서업무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일이 없어요, 근데 하자고 들면 정말 한도 끝도 없고, 일 자체가 서가정리만 해도 엄청나요, 책이 번호에 맞춰서 꽂혀 있어야하는데, 게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걸 뽑아가지고 그 즉시 즉시에 맞는 번호에 갖다놓는 것도 일이에요, 그리고 북 트럭에 쌓아있는 책을 각 위치에 갖다놓는 것도 일이고요. (담당교사 C)

3.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

도서관 담당교사들은 특수학교 도서관이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활성화되기 위한 요구를 제시하였다. 도서관 담당교사들이 언급한 요구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교사들의 수업지원, 도서관의 인력지원, 도서관의 환경개선 지원, 그리고 도서관 운영 연수지원을 요청하였다.

1) 교사들의 수업지원

도서관 담당교사들은 도서관이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교사들을 위한 수업 지원을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특수학교들이 도서관 활용수업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 활용수업 또는 교사가 도서를 이용하여 수업을 하게 될 때, 교육과정과 연계된 책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도서들을 이용해 어떻게 연계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과 수업에 관련되어 질 수 있는 도서들의 선정에서부터 활용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도서관의 활용이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과에 딱 맞는 책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만일 우리 반 애들이 시간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그러면 시간에 맞는 책들이 우리학교에 뭐가 있나 하고, 그거를 이제 수업에 투입하고 이런 것들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본인 혼자 하기는 벅차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사서교사가 담임선생님이 요구를 하면 “아 요즘에 제가 애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관련된 책 좀 리스트 뽑아서 해 주세요” 그러면 사서 교사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전문 사서 교사가 있는 데가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담당교사 A)

교사 혼자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시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시려고 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교육과정하고 연결을 해서 수업까지 연결을 해서 활용하시는 거는 많이 부담이 되요, 사실은, 누가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깐. (담당교사 B)

2) 도서관의 인력지원

도서관 담당교사들은 특수학교에서의 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도서관 담당교사들은 사서교사의 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교육청에서 사서교사를 신청할 것인지에 대한 공문을 받을 때 마다 신청은 하고 있지만, 실제 배치가 되지는 않고 있다고 하였다. 담당교사들은 단지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사서교사의 배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학교의 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사서교사가 배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질 높은 특수학교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사서교사의 배치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교육청에서 사서교사가 필요한 학교는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공문이 한 번 왔었거든요, 저희가 신청을 한 상태이긴 한데, 사실은 경비 문제 때문에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담당교사 D)

사서교사가 있으면 좋죠, 일단 사서교사가 상주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도 충분히 많이 와서 읽을 수가 있고, 중간 중간에 쉴 때도, 도서 대출도 가능하고, 뿐만 아니고 교사나 뭐 그게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도 도서관 이용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담당교사 A)

도서관 담당교사들은 사서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도서관이 보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보조인력을 요구하였다. 현재 보조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도 보조인력이 학교의 업무시간동안 상주하는 경우

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의 업무시간동안 도서관을 개방하고 대출과 반납 업무 등을 맡아 학생들이 도서관의 운영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인턴 선생님이 안계셨으면 지금 해주시는 업무도 다 제 업무가 될 텐데, 인턴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정말 저 혼자서 어떻게 감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교사 B)

다른 업무를 안보는 게 아니고 담임업무가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서나 도우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고 사람들도 와서 보면 맨날 딱하니까, 도우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항상 했었죠. (담당교사 C)

3) 도서관의 환경개선 지원

도서관 담당교사들은 특수학교 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도서관 담당교사들은 특수학교 도서관이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책들만이 아닌 장애학생들이 선호하는 장난감이나 교재교구들로 채워진 도서관으로 변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기존의 어린이도서관과 유사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도서관은 장애학생들로 하여금 도서관에 오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수학교 도서관이다 보니까 교재교구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심지어 장난감 도서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굳이 도서관에 책만 있어야 되나? 우리학교는 특수학교인데, 이런 생각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진을 봤는데 서가가 있고 막 장난감들이 있어요, 장난감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뭐 장난감 도서관이 굳이 아니라면 책도 재미있는 책 되게 많거든요, 팝업이라든지, 그런 재미있는 책들을 위주로……. (담당교사 C)

어린이 도서관을 가보면 캐릭터 인형들이 비치되어있어요, 보로로부터 시작해서, 애들 다 좋아하거든요, 일반 애들 보다 학원을 안가서 티비를 많이 보는 편이고, 케로로니 보로로니 많이 압니다, 토마스부터 해서, 그런 캐릭터가 비치되어있는 어린이 도서관을 가면 거기가 놀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놀이터가 되고, 가서 기대고 거기가 소파처럼 되어있으니까 가서 편하게……, 그런 어린이 도서관처럼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교사 D)

도서관 담당교사들은 장애학생들이 도서관을 활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비치하는 책을 장애학생의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장애학생이든 비장애 학생이든 만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만화책을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근래에는 교육 만화도 많이 발간되어져 있기에, 장애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만화책이 필요하며, 또한 그림이나 사진으로 채워져 있으며 장애학생들의 생활연령 수준에 맞는 책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읽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많으므로, 이들을 고려하여 그림이나 사진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서를 비치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특수학교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만화책을 많이 갖다놔야 돼요, 만화로 된 학습 만화 역사 만화 과학 만화, 만화로 된 책을 많이 구비해놓으면 제 경험적으로 아주 잘 나갑니다 글만 빼곡히 있는 책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학습만화의 경우 그림만 봐도 아이들이 신나합니다, 깔깔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소리 나는 책도 재밌고 만화책도 재밌고 그런 식으로 흥미를 자꾸 유발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담당교사 D)

요즘에는 도서가 딱 글로 된 도서가 전부가 아닌 거 같아요, 그림이나 사진으로 된 도서도 정말 많고……,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도 글이 어렵고 이런 아이들은 그런 도서를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담당교사 F)

도서관 담당교사들은 도서관이 장애학생들을 위해 편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편안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장애학생들이 도서관 내의 원하는 위치에서 책도 볼 수 있고, 동영상도 감상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도서관도 경직되어있는 그런 도서관에 다들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 조용히 해야 되고, 전 그건 좀 아니어도 되지 않나? 일종의 매트 같은 개념으로 바닥을 싹 만든다든 해서 바닥에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담당교사 C)

운동도 있고 작은 실내 정원도 있고, 저쪽에선 장난감을 대여 할 수가 있고, 이쪽에선 큰 티비가 있어서 헤드폰을 껐거나 아니면 방음장치를 해서 영화를 보고, 저기서 만화책을 보고……, (담당교사 D)

도서관 담당교사들은 도서관이 문화의 장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역사회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에도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것처럼, 특수학교 도서관에서도 장애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들이 좋아하는 팝업 북을 직접 만들어 본 다던지, 아니면 도서관에 비치되어진 대형 화면을 통해 영화를 함께 감상하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각 반별로 팝업 북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도서관에서 갖는 거죠, 애들이랑 같이, 사서교사나 전담인력이 있다면 팝업 북을 만들거나 그런 이벤트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담당교사 C)

장애학생들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많이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 소외되어 있는 것들을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도서관은 쓰기학습, 여러 가지 지역사회 이용기술, 아니면 문화의 장 이런 식으로 가능한 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예산안에서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담당교사 B)

저희는 도서관에서 영화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애들이 즐밋춰 가서 영화보자 이게 아니고, 표를 만들어서 티켓팅도 하고……, (담당교사 D)

4) 도서관 운영 연수지원

도서관 담당교사들은 특수학교 도서관을 보다 잘 운영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얻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학교 도서관 운영의 좋은 사례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던지, 특수학교 도서관은 일반학교의 도서관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적합한 정보나, 장애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독서교육 또는 독서지도에 대한 연수를 희망하고 있었다.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안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연수기회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이들한테 이리이러한 것들을 좀 적용해 보면 좋겠다하는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초등 같은 경우는 도서 활용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 많이 갖고 그런 연수도 되게 많은 거 같아요, 독서 지도 방법에 대해 연수도 되게 많고요, 근데 특수 중에서는 그런 연수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담당교사 F)

저희도 다양한 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그런 교육을 좀 해주고, 교육을 할 때 그냥 시스템이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통계를내면 됩니다, 그것 말고, 좋은 케이스들을 집합교육 때 보여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좀 더 활성화 돼서 그쪽으로 특수학교에서 오신, 지금은 일반학교하고 묶어서 하거든요, 특수학교 선생님한테

테는 바람직한 특수학교 도서관의 사례를 주고 연구하는 시간들을 좀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교사 D)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담당교사들의 경력이 4개월에서 4년까지로 나타났는데, 1년 미만의 도서관 담당 경력을 가진 교사가 4명, 그리고 나머지 2명의 교사는 각각 3년과 4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4명의 참여자가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것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체제가 개편되고 이에 따라서 담당자도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본 연구에 참여한 2개 학교처럼, 3년 이상 동일한 담당자가 도서관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교사들의 학교 이동, 업무 분장의 변경에 따라 도서관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는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도서관 담당 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인터뷰 동안 도서관 운영에 대해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특수학교 도서관의 운영 현황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자료와 다양한 정보요구를 가진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수업과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특히 도서관 활용수업은 학생의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신장을 목표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2003년부터 시작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본 연구에 참여한 도서관 담당교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특수학교의 경우 모두 도서관 활용수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다독왕 등과 같은 도서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다. 비록 담당교사들이 도서관 활용수업과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었지만, 특수학교 실정에 보다 적합한 도서관 활용수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담당교사들은 특수학교 도서관이 보다 장애학생의 요구에 맞도록 운영되기 위해서 연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연수에는 도서관 운영뿐만 아니라, 장애학생들의 책 읽기에 대한 지도도 포함하고 있었다. 류명옥(2009)의 연구에서도, 정신지체 특수학교 도서관의 경우, 77.6%의 학교에서 교과

와 연계한 도서관 활용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57.1%의 학교에서 도서관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들은 교사의 도서관 이용 증대 방안으로 교과연계 독서교육에 대한 연수 및 교육을 꼽고 있었다. 2010년에는 도서관 활용수업이 단순히 이동수업이 아닌 교실수업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동교수 차원의 장학자료집 『학교도서관에서 배우는 기쁨, 아는 즐거움』(교육과학기술부,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이 일선 학교에 보급되었다. 하지만 이는 일반학교의 학교도서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특수학교 교실 환경에 적합한 도서관 활용수업 전략과 사례를 개발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학교 도서관의 행사는 학생의 독서 흥미와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 등 다양한 인적 자원 간에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을 운영 원리로 삼고 있다. 『2010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절반(49.2%)은 본인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보고 하였으며, 학생들의 독서 장애 요인 역시 ‘독서습관 부족’(26.0%)과 ‘학교 공부, 학원 수강 등 학업 부담’(25.0%)인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이러한 조사 결과는 특수학교에서의 독서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장애학생의 경우도 일반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책을 보거나 읽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책 읽기나 독서를 학생에게 맡겨두기 보다는, 학교에서의 독서는 교사와 함께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독서 자체가 학습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학교의 경우는 일반학교의 도서관 프로그램을 단순히 모방하기 보다는 학생의 장애 특성과 학습능력 등을 고려하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특수학교에서의 도서관 프로그램이 학생의 도서관 이용 증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장서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DLS는 장서관리와 독서교육 그리고 도서관 활용수업과 같은 자료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도 6곳의 학교 모두 DLS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다. 류명옥(2009)은 정신지체 특수학교 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서, 75.5% 정도가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 도서관에서 DLS의 활용은 자료 관리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을 위한 시청각 자료의 접근성 강화와 지역사회와 가정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담당교사들이 DLS를 주로 대출·반납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DLS는 대출·반납 서비스 이외에도 독서교육, 도서관 활용수업, 도서관 이용지도 등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수학교 도서관 담당교사가 DLS의 목적과 활용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직무연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디오북이나 그림책 그리고 동영상 자료

등 DLS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 수준에서 교사와 학생의 요구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DLS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시·도교육청에서 특수학교 도서관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메뉴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학생들의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확대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2.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의 특징

도서관 운영 실태에서 나타난 운영(개방)시간 제한, 소수 학생의 도서관 이용, 그리고 수준과 요구에 적합한 자료 선정의 한계 등은 도서관이 제공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인 접근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즉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개방하는 물리적 접근성 수준과 요구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는 지적 접근성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서관에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없는 특수학교 도서관의 경우에는 전체 학교 일과 중 일정시간만 도서관을 개방하는 경우가 존재하였으며,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할 때 장애학생의 수준이나 교과 내용에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도서관 운영 시간을 학생이 학교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특정 소수의 학생들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Murrary (2000)는 장애학생들의 규칙적인 학교도서관 방문은 공공도서관이나 기타 사회기관의 이용에 도움을 주고 독서능력과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주는데 매우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특수학교 도서관에 대한 장애학생들의 접근성은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정신지체 특수학교 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분석한 류명옥(2009)의 연구에서도 담당 교사의 절반 정도(51%)만 물리적 접근성이 좋다고 응답한 반면, 단행본 자료는 평균 3,016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같은 연도에 발표한 학교도서관 평균 장서수 9,691권의 1/3에 불과한 수준이다(한국도서관협회, 2009). 따라서 특수학교 도서관에서의 접근성 부족 문제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형식의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해균, 김성애, 김정현(2007)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시각장애인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 습득을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지만 독서 자료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학생을 위한 장서 확충을 위해서 장애 유형이나 교육과정별로, 그리고 장애학생의 정보 요구별로 장서를 개발하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열람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읽기능력이 부족한 장애학생에

게 생활연령과 상관없이 단지 유아용 도서만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들의 생활연령에 적합하면서도 그들의 정보접근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서들이 비치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학교 관리자이다. 외국 사례에서도 학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학교 관리자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의지와 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송기호 2009). 학교장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학교도서관은 자료 보관소 이상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학교장의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학교 관리자들이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예산을 축소하거나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며, 때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학교의 다른 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도서관은 단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기관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의 운영이 학교장을 포함한 학교 관리자들의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됨을 고려할 때, 학교 관리자들이 도서관이 가진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도서관이 장애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수학교 도서관의 접근성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담당교사들은 모두 학급 담임 업무를 맡으면서 도서관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담당교사 이외에 도서관 업무를 보조해주는 보조인력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혀 없는 경우도 존재해 도서관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도서관 담당교사의 업무 부담은 도서관 이용과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전문인력 문제는 사서교사 배치를 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955호)과 『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 제8852호)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류명옥(2009)의 연구에서도 정신지체 특수학교 도서관 활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사서교사의 배치를 꼽고 있다. 따라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081호)에서 ‘사서교사 1인’을 의무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처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269호)에 장애학생에 대한 도서관 운영과 정보활용교육 등을 담당할 사서교사와 보조직원의 배치를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

특수학교 도서관이 장애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무 담당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 제8852호)에서 단위 학교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 실정에 맞는 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장서관리, 예산 편성, 그리고 장애 학생을 위한 행사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는 교사와 학부모 대표는 물론 학생 대표도 참여 가능하며, 이용자 중심의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물론 본 연구에 참여한 담당교사가 소속되어있는 특수학교 모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주로 구입도서 선정에만 머무르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수학교 도서관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지 도서선정에만 운영위원회의 주된 역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 도서관의 보조인력으로 학부모나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는데, 연구에 참여한 6개의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는 보조인력이 존재하였지만, 나머지 3개 학교는 보조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 디지털자료실이 설치된 일반학교 도서관의 운영 지원 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학교가 전체 78.2%인 176개교로 가장 많고,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학교는 38.2%인 86개교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75.9%인 63개교가 학부모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경우가 각각 91.9%인 68개교와 89.7%인 61개교로 높게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09). 이처럼,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 자원봉사자와 학생 자원봉사자의 도서관 참여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특수학교는 이와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류명옥(2009)의 정신지체 특수학교 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구에 참여한 특수학교의 63.3%는 도서관에 자원 봉사자 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수학교 도서관은 사서교사와 같은 전문인력의 부재뿐만 아니라 도서관 업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인력이나 자원봉사자 부재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학부모의 도서관 참여는 대출 반납이나 서가정리 등 단순한 일손 돕기 차원보다는 도서관을 활용한 자녀의 독서능력 향상과 사회성 향상 등 일정한 교육적 목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종성과 윤명자(2008)는 학부모가 학교도서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습관 형성’이라고 하였는데, 특수학교 상황에서는 학부모가 특수학교에서 도서관 업무와 관련하여 단순 일손 돕기 차원의 자원봉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장애자녀의 도서관

활용에 대한 교육적 목표의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 일수도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학부모가 도서관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특수학교는 6곳 중 1곳으로, 나머지 5곳의 학교들은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학부모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는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존재하여, 도서관에서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었지만, 나머지 학교들은 소도시에 위치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거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가정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학교 업무나 활동에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상황 때문에, 특수학교의 도서관 운영에서 학부모의 참여와 역할을 축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도서관 운영에서 학부모 참여를 통해 학부모로 하여금 장애학생들의 도서관 활용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이해하고, 장애학생들의 책 읽기 능력이나 독서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에서의 지도가 가정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수학교 도서관이 갖고 있는 상황과 이용자의 요구가 학교 도서관 정책이나 시스템 개발, 그리고 연수 프로그램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관할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와 시·도교육청 관할인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학교도서관진흥법』 법률 제8852호)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로 대통령 산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법』 법률 제10558호)에는 장애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특수도서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특수도서관은 주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와 같은 감각장애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서, 특수학교의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도서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특수교육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된다.

V. 결 론

특수학교 도서관 담당교사들은 특수학교 도서관의 환경 개선과 이용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특수학교 도서관에 전문 운영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담당교사의 활성화 노력은 대부분 개인적인 의지와 희생의 산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점은 관리자의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의지 부족, 담당교사 본인의 전문성 부족과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는 장애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도서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을 제한하고 학생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담당교사들은 운영상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전문 인력 및 보조 인력의 배치, 특수학교 도서관 담당교사에 대한 맞춤 연수 실시, 특수학교 도서관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시설·설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특수학교 도서관에 대한 관리자와 교사 및 학부모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교육적 활용에 대한 장점이거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도서관 활용을 통해서 매력적인 교수 방법을 적용하고, 학생을 능동적인 학습자로 지원함으로써 학습 목표 달성에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도서관을 학습에 활용함으로써 손에 잡히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통해서 지적 호기심을 스스로 충족하는 능동적인 학습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자료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전이력 향상과 사회성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숙희 (2001). 시각장애인 정보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4), 229-256.
- 강숙희 (2011). 공공도서관의 장애유형별 장애인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42(1), 97-123.
- 교육과학기술부 (2010). **특수교육통계**.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1).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 방안**.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online]. [cited. 2010. 6. 20.]. <<http://www.law.go.kr>>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2009).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매뉴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영기, 이연옥 (2008).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구성요소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2), 87-108.
- 김영일 (2007). 시각 장애인의 도서관 자료 접근·이용권 확대 방안. **시각장애연구**, 25(3), 1-13.
- 김영신 (2004). 공공도서관 시각장애인실 서비스에 관한 조사 연구: 한밭도서관 시각장애인실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177-199.
- 김중성, 윤명자 (2008). 학교도서관의 학부모 자원 봉사 활동 실태 연구. **경성대학교 인문학논총**, 13(1), 269-296.
- 류명옥 (2009). 정신지체학교 도서관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문화체육관광부 (2009). **도서관 디지털자료실활성화방안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배경재, 곽승진 (2006). 시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2), 273-290.
- 송기호 (2009). **통합정보활용교육과정론**. 서울: 오름DLS.
- 이근민, 김인서, 임명준 (2004).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 **재활과학연구**, 22(1), 115-129.
- 이혜균, 김성애, 김정현 (2007). 장애인 독서환경 개선 방안 I: (독서)장애인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 실태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3), 619-643.
- 임안수 (1991).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시각장애연구**, 7, 3-24.
- 일본도서관협회 장애인서비스위원회 (2000).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운동연구회 옮김. 서울: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장보성, 김은정, 남영준 (2010). 장애인 이용자의 도서관불안 측정과 분석: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3), 309-327.
- 정연경, 김성진 (2008). 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 이용 및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문정보학회지**, 42(3), 301-323.
- 정재영 (2009). 대학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제공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73-91.
- 정재영, 정혜미 (2010). 장애인 이용자의 요구분석을 통한 대학도서관 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189-207.
- 한국도서관협회 (2009).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AASL, 2007).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7. [cited. 2011. 07. 01.]. <<http://www.ala.org/aasl/standards>>
-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Murray, J. (2000). How School Librarians can Contribute to the Personal Growth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Orana*, 36(2), 5-11.

The Current Status and the Perception of the Teachers on the Management of Special School Libraries

Lee, Mi Suk

Kongju National University

Song, Gi Ho

Kong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special school libraries and the perception of the teachers on the management of the libraries. The study included 6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charge of the school library, and they participated on the qualitative interviews. As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the findings were about the current management status of the library in special schools including the operating hours of the library, the users of the library, the ways to select books to be purchased, the assistants of the library, the ways to check out and to return books, and the library programs. Second, the findings were about the perception of the teacher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the library including the small number of students using library, the perception of the administrator on the library, the library used as different purposes, too much workload due to the absence of assistants. Third, the teachers suggested the ways of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the library, for example, the support for teaching classes, the support of the library personnel, the support for the change of the library environment, and the support of the in-service training for the library management.

Key Words

: special school, school library, library teacher

논문 접수: 2011. 08. 05 심사 시작: 2011. 08. 10 게재 확정: 2011. 09. 26